

휘발유 판매가격 상승세 지속

정유4사의 휘발유 공급가격이 하락했다.

한국석유공사는 7월 넷째 주 정유기업의 주유소 휘발유 공급가격(세전)이 전주대비 리터당 7.3원 내린 912.9원을 기록했다고 8월5일 발표했다.

7월 둘째 주 휘발유 공급가격은 전주대비 각각 44.8원 상승한 900.1원, 셋째 주는 20.2원 상승한 920.2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공급가격은 전주와 비교해 1.0원 오른 983.5원으로 정유기업의 공급가격 할인 종료(7월6일) 이후 3주 연속 상승했다.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 변화

(단위: 원/ℓ)

구 분	2010	2011/6	7/2주	7/3주	7/4주	8/1주	등 락
보통 휘 발 유	1,710.4	1,915.35	1,927.3	1,940.2	1,947.2	1,952.7	↑ 5.5
자 동 차 경 유	1,502.8	1,736.25	1,748.5	1,757.4	1,763.6	1,768.5	↑ 4.9
실 내 등 유	1,076.0	1,351.85	1,349.5	1,351.2	1,352.3	1,352.8	↑ 0.5

전국 주유소의 석유제품 판매가격은 4주 연속 상승하면서 강세를 이어갔다.

휘발유는 주간 평균가격이 리터당 5.5원 오른 1952.7원, 경유는 4.9원 상승한 1768.5원을 나타냈다.

8월4일 기준 휘발유 판매가격은 1953.8원, 경유는 1769.1원으로 정유4사 할인종료 직전인 7월6일과 비교해 각각 31.9원, 22.9원 올랐다.

휘발유 판매가격은 서울이 리터당 2028.2원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1974.2원), 인천(1966.1원)이 상대적으로 비쌌으며 광주(1936.4원), 전북(1936.9원), 전남(1937.0원)은 낮았다.

<화학저널 2011/08/08>